

Sound, Music, Action (공연을 만드는 소리와 음악)

공연에서 소리와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장면을 열고, 배우를 움직이고, 관객의 감각을 이끄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창작의 영감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운드 디자인, 듣는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소리와 음악적 요소들이 공연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창작자들의 작업 이야기를 통해 들어봅니다.

일시	2026. 8. 19(수)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강연자	박지혜(연출가) 양손프로젝트 연출, DAC Artist 연출 연극 <당신 좋을 대로> <파랑새> <유령들> <배신> <죽음과 소녀> 외 판소리 <눈, 눈, 눈>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 외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죽음과 소녀>
강연개요	들리는 연출, 보이는 소리 우리는 공연을 흔히 '보는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감각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배우의 목소리와 숨소리, 음악과 발소리, 침묵, 공간에 남는 울림까지. 소리는 장면을 꾸미는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연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공연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크기와 거리를 느끼게 하고, 장면의 속도와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는 인물의 기억을 불러오고, 어떤 소리는 눈앞에 없는 장소나 사건을 관객의 머릿속에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특정한 이론이나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연극과 창작판소리를 만들면서 실제로 부딪히고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리는 공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악과 음향, 사운드를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공연 안에서 하나의 소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음악의 리듬과 반복, 배우의 목소리와 호흡, 침묵과 잔향, 공간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소리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소리까지. 서로 다른 소리들이 장면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리가 어떻게 공연의 흐름과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따라 제가 작업했던 공연들을 돌아보며, 소리를 통해 공간과 시간, 인물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소리는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가?
 2. 소리는 어떻게 시간을 움직이는가?
 3. 소리는 어떻게 인물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오는가?
 4. 소리는 어떻게 없는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가?
 5. 배우의 몸은 어떻게 음악이 되는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 뉴스레터
Studio DAC POST
(지난 뉴스레터 보기, 무료 구독하기)